



———— Yoon Jiwon ————  
**Web Design & Graphic Design**

# Portfolio

e-mail: wannit921@kakao.com

Phone: 010-2620-0326

# Contents

0. 디자인 이력서

1. 폴리곤 아트

2. 팝아트

3. 매쉬 아트

4. 아이소메트릭

5. 리플릿 디자인

6. 편집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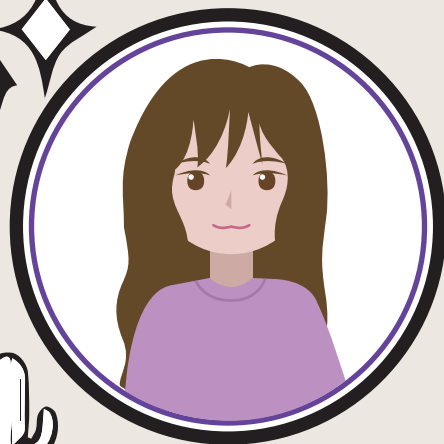
7. 패키지 디자인

8. BIP 통합 디자인

1) 봉투 디자인

2) 간판 디자인

3) 사원증 디자인



윤지원  
Jiwon Yoon



광주광역시 북구



만 22세



010-2620-0326



@jiwon\_ll



wannit921@kakao.com

## Education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졸업  
(2017)

한울직업전문학교  
모던웹디자인 과정 수료  
(2021.07.28~2022.01.06)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2021)

## Tool Skill



Adobe Illustrator (50%)



Adobe Photoshop (50%)



Adobe Indesign (45%)



Figma(60%)



Html & CSS & JQuery (50%)



## Hobby



디저트 맛집  
찾아다니기



홈베이킹



건반 연주하기

## Certificate



GTQ 1급



웹디자인 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필기합격)

## 1. 폴리곤 아트

Ai



## 2. 팝아트

Ai



### 3. 매쉬 아트

Ai



## 4. 아이소메트릭

Ai





## 5. 리플릿 디자인





## 6. 편집디자인

Ai Ps



###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전반에서 환상의 흐름을 자랑했던 두 친구는 이제 둘도 없는 완벽한 파트너가 됩니다. 물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은 심비오트 녀석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느 날 예디 브록(흔히 예디)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전설적인인 클라리스 캐서디(루디 해럴슨)가 나타납니다. 어떤 과거와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시간과 도제를 의미하는 의상상의 말을 내뿜는 클라리스 캐서디.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사형 집행 날 시간이 발생합니다. 빨간 심비오트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그를 잡아먹고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 괴물을 뱉는 것. 그리고 곧장 과거의 연인 슈리크(나오미 해리스)를 찾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어렵다고 말할 겁니다. 참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음악 내지는 지루한 음악이라는 말만 듣지 않아도 마음에 희망의 미소를 띄우며 안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적 의미에서 옛날은 '클래식'은 고대 로마 시인의 최고예금을 지칭하는 라틴어 '클라시쿠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오늘날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전형적이고 최고의 예술 작품을 나타내는 말로 통용됩니다.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모양일까? 전형적인 모습에 가장 안정적이고 하면 좋지 모르게 광범하게 생각을 하여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고,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니 말이다.

최고의 예술 작품을 나타내는 의미가 없었던 이 지구상에 클래식이라는 예술이 어떻게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 존재의 가치를 빛낼 수 있었겠는가.

안정적이고 전형적인 클래식을 해로운 어렵다고 하고, 때로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욕구와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가미하여 또 다른 모습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킨, 클래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이 노력한 그 모양을 소개한다.

출처 : 광주인(<http://www.gwangjin.com>)



### 클래식의 또다른 얼굴

1997년 한국영화 한 편의 인기를 끈다. 그해 한국영화 총형 2위를 기록하며 대중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고 여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전도연은 최정삼 감독 배우로 자리매김을 한 영화 '집속'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영화가 성공하면서 주제가음적으로 사용되었던 음악까지도 인기를 얻으며 흥행에 막대한 감동하는데, 영화 '집속'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은 사라 본이 부른 'A Lover's Concerto'. 이 음악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이 바흐의 '미뉴에트(BWV 114)'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크리스티안 펠츠로 (Christian Petzold, 1677-1733)의 작품으로, 본래의 멜로디에 창의적인 리듬을 가미하여 탄생시킨 클래식인 또 다른 모양의 음악이다.

1965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였던 샌디 린저(Sandy Linzer)와 데니 랜들 (Denny Randel)이 발표한 이후 크게 인기를 끌자 여러 가수에 의해 녹음이 되어 발표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랑받으며 많은 버전은 사라 본이 부른 'A Lover's Concerto'일 것이다.

이 외에도 독일 출신의 그룹 sweet box는 바흐의 'G 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sampling)하여 'Everything's gonna be alright',이라는 노래로 발표했고, 미국 가수 에릭 카먼(Eric Carmen)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2악장',의 멜로디를 도입 부분에 사용하여 'All by myself',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가까운 동양 일본에서는 The Venus라는 그룹이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멜로디를 그대로 사용한 채 올디즈(Oldies) 풍으로 변형시켜 '키스는 눈으로(キッスは目でして)',라는 타이틀의 가요로 불렀고, 가수 히라하라 아카리(平原あかり)는 영국 작곡가 구스타브 홀스트의 '주피터-Jupiter',멜로디를 노래로 부르고 있다.

오르포르트의 경우는 현재 중요로 불리고 있지만, 본래는 상상이었던 '반학박학'적인 멜,의 멜로디를 그대로 활용하여 12번주곡의 클래식 음악으로 역발상의 기질을 발휘하여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사람이 듣고 연주하여 사랑하는 음악으로 탄생시켰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감각적인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기존의 모습을 안정적으로 보존한 채 또 다른 모습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출처 : 광주인(<http://www.gwangjin.com>)



###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전반에서 환상의 흐름을 자랑했던 두 친구는 이제 둘도 없는 완벽한 파트너가 됩니다. 물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은 심비오트 녀석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느 날 예디 브록(흔히 예디)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전설적인인 클라리스 캐서디(루디 해럴슨)가 나타납니다. 어떤 과거와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시간과 도제를 의미하는 의상상의 말을 내뿜는 클라리스 캐서디.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사형 집행 날 시간이 발생합니다. 빨간 심비오트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그를 잡아먹고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 괴물을 뱉는 것. 그리고 곧장 과거의 연인 슈리크(나오미 해리스)를 찾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어렵다고 말할 겁니다. 참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음악 내지는 지루한 음악이라는 말만 듣지 않아도 마음에 희망의 미소를 띄우며 안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적 의미에서 옛날은 '클래식'은 고대 로마 시인의 최고예금을 지칭하는 라틴어 '클라시쿠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오늘날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전형적이고 최고의 예술 작품을 나타내는 말로 통용됩니다.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모양일까? 전형적인 모습에 가장 안정적이고 하면 좋지 모르게 광범하게 생각을 하여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고,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니 말이다.

최고의 예술 작품을 나타내는 의미가 없었던 이 지구상에 클래식이라는 예술이 어떻게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 존재의 가치를 빛낼 수 있었겠는가.

안정적이고 전형적인 클래식을 해로운 어렵다고 하고, 때로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욕구와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가미하여 또 다른 모습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킨, 클래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이 노력한 그 모양을 소개한다.

출처 : 광주인(<http://www.gwangjin.com>)

### 클래식의 또다른 얼굴

1997년 한국영화 한 편의 인기를 끈다. 그해 한국영화 총형 2위를 기록하며 대중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고 여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전도연은 최정삼 감독 배우로 자리매김을 한 영화 '집속'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영화가 성공하면서 주제가음적으로 사용되었던 음악까지도 인기를 얻으며 흥행에 막대한 감동하는데, 영화 '집속'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은 사라 본이 부른 'A Lover's Concerto'. 이 음악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이 바흐의 '미뉴에트(BWV 114)'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크리스티안 펠츠로 (Christian Petzold, 1677-1733)의 작품으로, 본래의 멜로디에 창의적인 리듬을 가미하여 탄생시킨 클래식인 또 다른 모양의 음악이다.

1965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였던 샌디 린저(Sandy Linzer)와 데니 랜들 (Denny Randel)이 발표한 이후 크게 인기를 끌자 여러 가수에 의해 녹음이 되어 발표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랑받으며 가장 사랑을 받는 버전은 사라 본이 부른 'A Lover's Concerto'일 것이다.

이 외에도 독일 출신의 그룹 sweet box는 바흐의 'G 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sampling)하여 'Everything's gonna be alright',이라는 노래로 발표했고, 미국 가수 에릭 카먼(Eric Carmen)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2악장',의 멜로디를 도입 부분에 사용하여 'All by myself',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가까운 동양 일본에서는 The Venus라는 그룹이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멜로디를 그대로 사용한 채 올디즈(Oldies) 풍으로 변형시켜 '키스는 눈으로(キッスは目でして)',라는 타이틀의 가요로 불렀고, 가수 히라하라 아카리(平原あかり)는 영국 작곡가 구스타브 홀스트의 '주피터-Jupiter',멜로디를 노래로 부르고 있다.

오르포르트의 경우는 현재 중요로 불리고 있지만, 본래는 상상이었던 '반학박학'적인 멜,의 멜로디를 그대로 활용하여 12번주곡의 클래식 음악으로 역발상의 기질을 발휘하여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사람이 듣고 연주하여 사랑하는 음악으로 탄생시켰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감각적인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기존의 모습을 안정적으로 보존한 채 또 다른 모습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출처 : 광주인(<http://www.gwangj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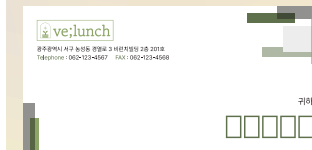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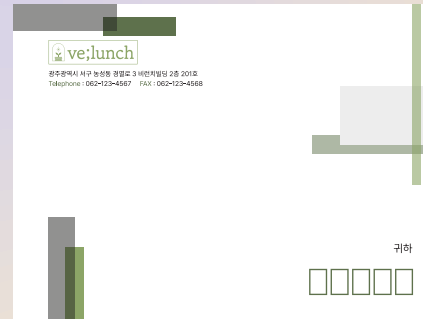
## 7. 패키지 디자인

Ai Ps



## 8. BIP 통합 디자인

### 1) 봉투 디자인



## 8. BIP 통합 디자인

### 2) 간판 디자인





## 8. BIP 통합 디자인

### 4) 배너 디자인



## 8. BIP 통합 디자인

### 3) 사원증 디자인

